

望海亭과 臨海殿

李 基 白

I

筆者는 오래전부터 新羅의 臨海殿이 百濟의 望海亭 혹은 望海樓의 영향을 받아서 이룩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왔었다. 이러한 생각은 얼마전 雁鴨池 發掘의 現地를 잠깐 둘러보고 나서 더욱 굳어지게 이르렀다. 이에 간단히 이러한 筆者의 생각을 적어서 修正을 받고자 한다.

II

臨海殿이 언제 세워진 것인지 그年代를 정확히 알기는 힘든 일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孝昭王六年(六九七)에

臨海殿에서 群臣에게 宴會를 베풀었다.(三國史記 八 孝昭王 六年 九月)

고 한다. 아마 이것이 臨海殿에 관한 믿을 수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東京雜記에는 다음과 같이 雁鴨池가 文武王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雁鴨池는 天柱寺 北에 있다. 文武王이 宮內에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巫山 十二峯을 본뒀고, 花卉를 심고 珍禽을 길렀다.

(東京雜記 二古蹟條)

東京雜記가 依據한 資料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잘 알 수는 없으나, 아무런 根據가 없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雁鴨池의 축조를 文武王代로 전하는 東京雜記도, 臨海殿에 대해서는

그 西쪽에 臨海殿이 있는데 언제 創建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東京雜記 二古蹟條)

고 하였다. 대체로 보아서 雁鴨池와 臨海殿이 동시에 築造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비록 臨海殿이 年代가 뒤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리 큰 年代差가 있음직하지는 못하다. 아마 統一 뒤의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이 臨海殿 혹은 雁鴨池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그 造景에 특별한 考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東京雜記에 의하면 雁鴨池에는 돌을 쌓아 산을 만들어 巫山 十二峯을 본뒀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꽃나무를 심고 친기한 새를 길렀다고 한다. 巫山은 神女가 산다는 中國의 景勝地이다. 과연 雁鴨池 주변에 十二峯이 만들어져 있었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는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할 점이며, 따라서 道路를 확장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그 地形이 함부로 變形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發掘에서 분명히 들어난 것은 雁鴨池에 세 섬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筆者는 이 세 섬이 곧 三山을 상징한 것이라고 믿는다. 三山은 神仙이 살고 있었다고 전하는 中國 東쪽 바다의 蓬萊·方丈·瀛洲의 三神山이다. 雁鴨池가 단순한 못이 아니라 바다로 상징되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언덕은 巫山

十二峯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못 속의 세 섬을 三山에 바기는 것은 결코 無理한 일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둘째로 주목되는 것은 이 臨海殿에서 群臣들에게 宴會를 베푼 일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이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바로는 孝昭王六年 九月, 惠恭王五年 三月, 憲安王四年 九月, 憲康王七年 三月 등 네 차례나 있었다. 만일 敬順王五年 二月 高麗 太祖 王建이 慶州를 방문하였을 때에 베푼 宴會까지를 합친다면 五차례에 걸치는 셈이다. 臨海殿에 관한 八차례에 걸친 三國史記의 전기록 속에서 이 비중은 너무도 큰 것이다. 아마 臨海殿은 群臣의 宴會場所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 같다.

III

그러면 이러한 臨海殿이 百濟의 望海亭 혹은 望海樓에서 着想을 얻었으리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望海亭은 百濟의 마지막 임금인 義慈王 때에 세워졌다고 한다. 즉

望海亭을 王宮 南쪽에 세웠다. (三國史記 二八 義慈王 一五年 二月)

고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望海亭은 義慈王 때에 처음 세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은 그보다 약 二〇년 전에 望海樓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望海樓에서 群臣을 宴會하였다. (三國史記 二七 武王 三七년 八月)

고한 것이 그것이다. 위의 望海亭과 이 望海樓를 같은 것으로 단정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음 기록과 비추어 생각하면, 이들은 결국 같은 것이었으리라는 생각이 깊어진다.

宮 南쪽에 못을 파고 물을 二〇餘里 끌어들이었다. 四岸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는 섬을 만들어 方丈仙山에 비기었다. (三國史記 二

七 武王 三五년 三月)

이에 의하면 武王 三五년(六三四)에 宮城 南쪽에 못을 파다고 한다. 그리고 義慈王이 세웠다는 望海亭도 宮城 南쪽에 있었다. 그렇다면 望海亭은 바로 武王이 만든 못가에 있었고, 그 못이 바다로 상징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百濟의 서울 扶餘에서 실제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武王이 못을 판 지 불과 一년 뒤에 나오는 望海樓도 이 못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만 望海亭을 義慈王이 처음 세웠다고 한 것이 문제인데, 이는 혹은 重創 혹은 增築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실제로 이와 동시에 義慈王은 太子宮을 사치하게 重修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만일 위와 같은 考證이 정확한 것이라면, 百濟 武王 때에 못을 파고 이는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 못가에 樓亭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望海樓 혹은 望海亭이라고 불리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新羅의 臨海殿과 꺾 비슷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望海亭이 세워졌던 못에 섬을 쌓고 이를 方丈仙山에 비기었다는 사실이다. 方丈仙山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神仙이 살고 있다는 三山の 하나이다. 新羅의 臨海殿이 있는 雁鴨池에는 三山이 있었지만, 百濟의 望海亭이 있는 못에는 그 하나인 方丈仙山이 있었다. 비록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그것이 같은 着想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세째로 望海樓에서 群臣에게 宴會를 베푼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앞서 臨海殿이 群臣의 宴會場所로서 여러차례 이용되었음을 보았지만, 이 양자도 역시 서로 상통한다고 할 밖에 없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점에서 미루어 보아, 新羅統一 期初에 세워진 臨海殿이 百濟의 望海亭 혹은 望海樓와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 臨海殿이 望海亭에서 着想을 얻었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IV

悲運으로 나라가 亡하면 그 文化도 忘却의 世界로 사라져버리기가 일수다. 百濟의 文化도 역시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百濟의 文化가 新羅의 文化로 흡수되어 발전되었으리라는 증거들이 적지 않게 밝혀져가고 있음은 歷史의 眞實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望海亭과 臨海殿에 얽힌 사실들의 究明도 그러한 하나의 구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서둘러서 쓴 관계로 많은 資料를 찾아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不足하고 잘못된 점은 훗날 補正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追記〕 本稿를 서둘러 써서 제출한 뒤에 洪思俊선생의 「宮南池와 土器」(考古美術 一〇六・一〇七合輯, 一九七〇)를 읽게 되었다. 여기서 洪先生은 新羅의 雁鴨池와 百濟의 宮南池에 언급하고, 百濟의 宮南池가 新羅의 雁鴨池보다 四〇년이나 앞서 축조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苑囿界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비록 그 연관성에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양자를 비교한 것은 많은 示唆을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扶餘에는 宮南池의 遺址로 보이는 못이 남아 있다는 바, 筆者의 口味를 크게 자극해주고 있다. 장차 그 遺址를 찾아볼 기회를 갖고자 하며, 아울러 本稿를 더욱 增補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응당 本文에서 언급되었어야 할 이 論文을 여기에 이러한 형식으로 追記하게 된 것은 洪先生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七六・六・二七)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